

청소년의 오프라인 일탈과 온라인 일탈에서 인지된 집합효율성의 통제 효과*

이 선 형** · 강 정 한***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일탈에서 중요하다고 밝혀진 가정과 학교의 통제효과가 면대면 관계를 벗어난 온라인 일탈에서도 유효한지를 오프라인 일탈과 비교하며 검증하였다. 한편, 면대면 관계로부터 탈배태(disembed)된 온라인 일탈에서는 내면화 된 규범체계와 관련된 집합효율성의 통제효과가 가정과 학교의 통제효과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집합효율성은 주민 간 신뢰와 비공식 사회통제 두 구성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료는 2003년에 중2인 3,449명을 고3까지 추적 조사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하였고, 분석은 패널 토빗 회귀분석을 이용해 일탈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정하였다. 우선 가정과 학교의 통제효과를 비교해 보면, 부모와의 유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일탈 모두에서 통제요인이 되지 못하지만 학교통제를 대표 하는 선생님유대는 여전히 중요한 통제역할을 하고 있었다. 집합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오프라인 일탈에는 비공식 사회통제의 효과가 나타나 모니터링을 통한 통제가 중요함을 알 수 있는 반면, 다양한 기회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온라인 일탈은 주민 간 신뢰가 일탈 감소의 효과를 보여 내면화 된 통제가 더 중요함이 나타났다.

❖ 주제어 : 오프라인 일탈, 온라인 일탈, 집합효율성, 토빗 분석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3A2055285)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kacyg@hanmail.net)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jkan9130@gmail.com)

I. 서론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IT 전자기기는 상대적으로 컴퓨터 기기보다 인터넷 접속 시간이 절약되고 사용방법이 어렵지 않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정보를 획득하고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잘 인지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보유율은 74.1%로 전체 보유율(71.6%)보다 높고 인터넷이용률은 99.7%이며 그 보유율과 이용률은 2, 30대로 갈수록 증가 한다¹⁾. 그런데 온라인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사용자의 정보 역시 쉽게 노출될 가능성을 내포하며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일탈의 ‘무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 ‘타인에게 사이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일반인(성인)이 14.4%인 반면, 중고등학생은 각각 39%와 38.4%가 답하였다. 이러한 청소년의 높은 온라인 일탈 경험은 새로운 통제 기제가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소년 일탈에 있어서 가정과 학교는 중요한 통제역할을 해왔지만 면대면 관계로부터 벗어난 익명적인 공간인 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가정과 학교의 통제요인을 벗어나 새로운 일탈기회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사이버 범죄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기제가 청소년의 온라인 일탈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적 일탈 연구는 아직 분명한 답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사회학적 접근의 어려움은 사회적 관계가 가져오는 통제나 지지효과에 주목하는 경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면대면 관계로부터 탈배태된(disembedded) 온라인 공간에서도 가정, 학교, 친구 관계 등을 통해 형성된 통제 기제나 사회적 자본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공동체 수준에서 범죄와 일탈을 억제하는 집합효율성(collective

1) 20대의 스마트기기 보유율은 98.8%, 인터넷이용률은 99.9%이고 30대의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97.3%, 인터넷이용률은 99.7%로 나타났다. (201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efficacy)의 통제 효과에 주목하려 한다.

집합효율성은 효능감(efficacy)이라는 심리학적 기제와 어원을 같이 하는데서 드러나듯이, 공동체 수준에서 형성된 통제기제가 직접적 관계를 통해 작동하기보다는 행위자에게 내면화되어 작동함을 암시한다. 이러한 집합효율성의 속성은 심리적인 자기 절제나 내면화된 통제가 중요한 온라인 공간에까지 통제 효과가 이전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집합효율성처럼 가정이나 학교보다 광범위한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는 통제 효과에 대한 검증은, 최근 청소년 일탈 연구뿐만 아니라 청소년 학교 폭력 관련 정책제안 내용도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강조²⁾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의의가 클 것으로 본다.

II.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일탈에 대한 기존 논의

청소년 일탈에서 원인요인이 일탈의 기회를 높이는 환경이나 정보에 노출되는 측면에 주목한다면 통제요인은 이러한 기회에 노출되더라도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측면에 주목한다. 때문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일탈의 원인요인과 통제요인이 공존할 때 어떤 요인이 더 일탈에 영향을 주는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 일탈을 억제하는 통제요인뿐만 아니라 원인요인도 함께 고려하여 비행친구, 부모의 부정적 행동, 일탈낙인의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가. 청소년 일탈 원인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원인요인인 비행친구와 부모의 부정적 행동은 차별접촉이론을 그 배경으로 한다. 차별접촉이론은 1939년 서덜랜드(Sutherland)에 의해 등장한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에서 주목한 일탈의 원인요인이다. 청소년들이

2) 이민희, 2006.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천적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KEDI] 연구보고서

주위사람들로부터 범위반에 호의적인 가치나 태도를 자주 접촉하고 학습하게 되면 일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경험적 연구들 중에서는 비행친구의 수, 비행친구와의 빈도, 기간, 우선성, 강도와 일탈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있었다 (Short, 1957; Eilliot et al., 1996; 박영신, 김의철, 2003; 노성호, 2005). 또한 1982년 마쓰에다(Matsueda)의 연구는 비행에 호의적인 태도를 내면화한 아이들이 일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차별접촉이론에 대한 지지를 높였다. 그렇지만 차별접촉이론은 어떤 청소년들이 비행친구와 더 접촉을 하게 되는지, 일탈의 학습과정과 구체적 내용, 차별접촉 없이 일어나는 일탈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글레이저(Glaser, 1956)의 차별동시이론(differential identification theory)은 비행친구의 대면 접촉이 없어도 다른 매체를 통해 인물을 모방함으로써 일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버제스와 에이커스(Burgess and Akers, 1966)도 차별강화이론(differential reinforcement theory)을 제시하여 일탈에 대하여 처벌이 없거나 보상이 주어지게 되면 일탈을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청소년기의 특성상, 또래 친구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차별접촉이론에서 주목하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본 연구에서도 주요 요인으로 포함된다. 청소년 일탈의 내용이 술, 담배, 집단 폭행 등 어울려 하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방의 측면에서 부모의 부정적 행동과 폭언 역시 차별접촉이론과 관련된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자료로부터는 알 수 없지만 어른들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행위나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물을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은 일탈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비행친구와의 접촉이나 부모의 부정적 행동은 청소년의 일탈행위에 원인이 될 수 있다.

일탈낙인은 최초 일탈을 하게 되는 계기보다는 반복 일탈에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된다.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을 배경으로 하는 일탈낙인은 누가 일탈행위를 하는가보다는 누가, 어떤 행위가 일탈로 규정되는가에 주목한다. 최초의 범위반 행위 자체보다는 처벌 과정을 통해 일탈이 규정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범법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어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자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Lemert, 1951, 1967). 그런데 낙인의 효과는 일탈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처벌의 정도나 사회계층적 효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중산층의 청소년들보다 하위계층 청소년들에 대한 낙인효과가 크거나 지속적일 수 있다. 박현수(2009)의 연구에서도

낙인효과가 지속되는 청소년들을 분석한 결과, 중산층보다 하위계층의 학생들에게 그 효과가 더 큰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낙인이론에 따르면 경비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비행 청소년들에게 낙인효과가 더 발견되어야 하지만 처벌은 일탈을 억제하며 오히려 경비행을 반복하는 청소년들에게서 비공식 낙인의 효과가 나타났다(최수형, 2008). 이처럼 기존 연구들이 낙인이론에 대해 회의적인 결과를 보여주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 청소년 대부분이 자신의 계층을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고, 사법기관이나 학교의 공식적 처벌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비공식적 낙인이 청소년들에게는 일탈의 지속과 차단에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탈낙인을 청소년 일탈의 원인요인으로 고려하여 그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나. 청소년 일탈 통제에 관한 논의

청소년 일탈 이론에 있어 주목하고 있는 통제요인은 사회유대이론과 자기통제이론이다. 사회유대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사회화기관의 통제에 주목한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혹은 사회통제이론)에서 출발한다. 그는 누구나 일탈동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탈동기가 일탈의 설명요인이 되지 못하는 반면, 사회는 건전하고 인습적이므로 사람들의 나쁜 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그 사회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일탈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회유대의 정도를 일탈의 중요한 원인으로 다룬다(Hirschi, 1969). 특히 경험적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은 일탈억제의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Wiatrowski et al., 1981; Liska and Reed, 1985; 김의철, 박영신, 2001b; 이상문 2005). 부모애착이 높은 청소년들은 일탈에 노출되더라도 일탈 행위로 인한 부모의 실망을 꺼려 일탈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학업에 열중하는 청소년들은 일탈할 경우 성적이 떨어지고 상급학교 진학이 어렵기 때문에 일탈의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한다(Cernkovich and Giordano, 1992; 이성식, 1994).

사회유대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선생님과의 유대관계도 중요한 통제요인이 된다.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생님과의 관계는 학교생활의 적응을 대변하기도 하며, 선생님은 학교에서의 통제역할을 하기 때

문이다. 친구유대의 효과는 좀 더 다중적인데 일탈 기회적인 관점에서는 청소년의 일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지만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는 초기 일탈 행위를 억제하는데 긍정적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사회유대이론은 일탈 통제에 있어 면대면(face-to-face) 관계를 통한 가정과 학교의 역할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부모유대, 선생님유대, 친구유대는 청소년 일탈을 억제하는 통제요인으로 고려된다. 한편, 이러한 유대가 형성된 사회로부터 벗어날수록 청소년이 일탈동기에 더욱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일탈보다는 온라인 일탈에서 그러한 통제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자기통제력은 Gottfredsen과 Hirschi의 일반이론(A General theory of Crime)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으며, 모든 유형의 일탈과 모든 연령층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³⁾. 일반이론은 일탈이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충동적으로 일어나지만 개인의 성향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자기통제력이라고 설명한다. 어린 시절 형성된 자기통제력은 부모의 양육태도로 그 수준이 결정되며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유대나 차별접촉과 같은 일탈 요인들은 주요원인이 될 수 없고,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자기통제력을 통제할 경우 이러한 요인들의 효과가 없음을 주장했다(Gottfredsen and Hirschi, 1990). 국내외 연구에서도 자기통제력의 효과는 일반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asmick et al., 1993; Wood et al., 1993; Gibbs and Giever, 1995; 민수홍, 2005). 그러나 일반이론은 낮은 자기통제력이 일탈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탈을 발생시키는 기회를 역시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통제력은 오프라인보다 상대적으로 통제는 약하고 기회에 노출되어 있는 온라인 일탈에서 더 요구되는 통제기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통제력이란 결국 행위자 개개인에 내면화된 통제요인으로서 사회유대가 최소화된 온라인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일탈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집합효율성도 이러한 내면화 과정을 통해 온라인 공간의 일탈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자기통제력이 부모의 양육으로부터 그 수준이 결정된다면 집합효율성은

3) Buker, Hasan.(2011). Formation of self-control: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nd beyond.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Vol. 16 No. 3. pp. 265-276

공동체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개별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는 별개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기통제력은 집합 효율성이 고유한(unique) 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통제변수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2. 온라인 일탈

본 연구에서 온라인 일탈의 개념은 ‘사이버범죄’의 정의와 같다. 사이버 범죄란 ‘불법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네트워크나 인터넷과 같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컴퓨터 혹은 그 밖의 IT기기를 사용하는 범죄’를 의미한다(McQuade, 2006)⁴⁾. 이렇게 정의된 사이버범죄는 일탈을 위해 컴퓨터나 다른 정보통신기기만 사용한 모든 범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과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하는 일탈이다. 왜냐하면 온라인 공간은 일탈을 위한 장소 그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도구적 기능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라는 용어보다는 온라인 일탈이라고 명명한다. 또한, 본 연구가 온라인 일탈에 주목하는 이유는 오프라인 일탈 중 음주, 흡연, 성관계 등 상당 부분은 성인이 되면 일탈이 아닌 경우가 있지만 온라인 일탈은 대부분 성인이 되어도 형사적 처벌을 받는 범죄의 내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오프라인 일탈보다 온라인 일탈에서 내면화된 규범체계가 더욱 요구될 수 있다.

온라인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일탈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성식의 연구(2008)는 오프라인에서 부모 및 친구와의 부정적 관계와 온라인의 익명성이 부정적 사이버자아를 형성하고, 사이버자아가 형성되면 사이버윤리의식 및 공식처벌 인지도의 약화를 가져와 사이버일탈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과 관련하여 이준기와 김정원(2009)의 연구는 온라인상의 익명성이 자기통제력을 낮추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은 온라인 일탈에 강한 영향력이 있음이 국내 연구들에서 밝혀졌다(신준섭, 이충환, 2010; 이성식, 2006, 2010; 남수정, 2011). 이러한 자기통제력과 온라인 일탈의 관계는 오프라인 공간보다 온라인 공간이 일탈을 할 수 있는 기회에는 더 노출되고 통제할 수 있는 요소로부터는 자유롭다는 특성과 연관된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의

4) 이성식(2008 : 20) 재인용

자기통제력의 수준과 일탈의 원인요인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으므로 일탈을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중요하다.

온라인 일탈에 대한 대책을 연구한 논문들은 사이버윤리교육, 정보통신 관련 기관들과 인터넷 사업자의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조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된 공동체의 자율적 통제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신동준, 이명진, 2006; 정완, 2007). 그러나 기관의 감시와 같은 공식적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사이버공동체의 비공식 사회통제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행위자까지 포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공간의 행위자는 기본적으로 현실세계의 행위자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은 상호순환적인 관계에 있다. 즉, 오프라인에서의 중요한 가치나 규범이 온라인 공간에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올바른 정보문화의 확산을 통해 규범의 내면화와 비공식적 통제기제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조동기, 2006).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오프라인의 집합효율성이 청소년들의 오프라인 일탈과 온라인 일탈에 주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통한 규범의 내면화 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3.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

가. 집합효율성의 개념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은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을 제안한 Bandura가 처음 주장한 개념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의 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역량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공유된 믿음을 의미한다(Bandura, 1997: 477).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상징하는 이러한 개념은 1997년 Sampson의 연구에서 주민들 간의 ‘상호 신뢰(mutual trust)’와 ‘공익을 위한 개입 의지(willingness to intervene to the common good)’가 결합한 개념으로 재해석 되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무질서나 범죄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Sampson et al., 1999: 919). 집합효율성 개념이 일탈과 관련하여 Sampson의 연구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보다 구체화된 개념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일탈 연구들은 Sampson의 개념

을 사용하고 있다. ‘공익을 위한 개입 의지’는 ‘상호 신뢰’의 수준에 의존한다. 즉, 주민 간 신뢰와 결속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일탈 통제를 위한 개입의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집합효율성은 가정과 학교보다 광범위하게 확장된 커뮤니티 수준의 통제요인으로 주로 지역수준 분석에서 사용되며, 강한 유대나 연결망보다는 보다 큰 수준에서 공유할 수 있는 사회통제의 기대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⁵⁾. 따라서 큰 규모(예를 들어, 동네)에서의 약한 유대가 집합효율성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집합효율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범죄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일탈이 증가할 수 있다.

Sampson의 이러한 주장은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대한 믿음에서 온 것이다. 경찰 또는 법과 같은 공식적 통제는 일탈 행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는 하지만 일탈예방의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 또한 경찰이나 법 이외의 사회통제는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목표를 위한 원칙을 따르도록 구성원들을 규제한다. 즉, 하나의 집중된 목표를 위해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다. 반면,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공식적이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행위와 관련된다. 아이들의 비행이나 지역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는 등 일탈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공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 집합효율성의 두 가지 내용에서 ‘공익을 위한 개입’은 이러한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ampson과 Raundenbush는 일탈의 원인이 무질서가 아니라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약한 지역에서 무질서와 일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고, 다른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사회통제로서 집합효율성의 영향력이 나타났다(Sampson and Raucenbush, 1999; Morenoff et al., 2001; Gibson et al., 2002).

나. 청소년 일탈과 집합효율성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

국내 연구에서도 집합효율성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오프라인 일탈과 관련하여 박정선(2003)은 경비행에 국한하여 집합효율성의 영향력을 관찰하며 공식적 통제보다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중요성을 거론했고, 김영지(2006)의 연구에

5) Sampson et al(1999). "Beyond Social Capital: Spatial Dynamics of Collective Efficacy for Children", 635p

서도 일탈에 대한 주민 인지도가 높을수록 청소년 일탈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박정선, 2003; 김영지, 방은령, 박정선, 2006). 온라인 일탈과 관련해서는 사이버공간이나 개별 인터넷사이트에서 형성되는 구성원들 간 신뢰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이 사이버언어폭력을 낮춘다는 연구가 있다(이성식, 황지영, 2008). 반면, 이성식(2013)의 연구에서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의 불법행동을 억제하는 그 대안으로서 집합효율성의 효과가 설명력이 낮음이 나타났다. 이처럼 집합효율성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일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성식(2013)의 연구에서 온라인상의 불법행동을 통합하여 분석하였을 때에는 그 영향력이 낮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탈의 내용별로 집합효율성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일탈을 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Sampson의 1997년 연구에서 정의한 방법에 따라 본 연구의 집합효율성에는 ‘주민 간 신뢰’와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내용을 포함하지만 Sampson의 연구에서처럼 두 내용을 결합하지 않고 분리하여 개념화하려 한다. 최근의 집합효율성을 분석한 국내 논문들도 집합효율성의 개념을 분리하여 분석하고 있다(이성식, 황지영, 2008; 윤우석, 2010, 이성식, 2013). 앞서 설명했듯이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통해 일탈에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수준은 주민 간 신뢰의 정도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또한,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측정하는 문항은 구체적인 행위들을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지역이 실제로 주민 간 신뢰가 높아도 비공식 사회통제의 내용에 따라 그것의 작동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활용하려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설문내용이 동네에서의 흡연, 폭행 등 특정 오프라인 일탈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일탈로의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Sampson의 연구에서 비공식 사회통제의 문항을 ‘일어날 법한(likely)’ 일탈 유형들로 가정한 것은 일탈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이에 주민들이 ‘얼마나’ 개입할 의지가 있는지에 무게를 두고자 한 것이다. 즉, 일탈의 예보다 개입의지가 중요하다면 온라인 일탈에도 영향을 미치는 내면화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집합효율성의 개념을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주민 간 신뢰로 분리해서 분석 한다고 해도 각각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일탈통제의 영향력은 공동체 수준의 통제효과의 가능성을 검증하

기 위해 여전히 중요하다.

다. 청소년 일탈과 ‘인지된’ 집합효율성

본 연구에서는 집합효율성의 직접적 효과보다도 ‘인지된’ 집합효과에 관심을 두는데, 그 이유는 설문 대상이 집합효율성이라는 통제기제를 주로 창출하는 주민이 아니라 통제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집합효율성과 주민들의 실제 일탈에 대한 개입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Banbura(1982)는 집단의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 것인가의 결정은 집합효율성을 인지하는 수준에 따라 다름을 강조한다. 결과가 실망스러워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인지된 집합효율성(perceived collective efficacy)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Sampson과 Raucenbush(1999)의 연구에서도 관찰된 사회적 무질서의 정도와 주민들의 주관적 판단이 높은 상관성을 보인 것처럼, 청소년들이 인지하고 있는 집합효율성은 실제 그 지역 주민의 집합효율성이 반영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일탈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집합효율성을 인지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실제 주민들의 집합효율성만큼 일탈 통제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집합효율성이 청소년에게 인지되고 온라인 활동 영향을 주는지 확인함으로써 오프라인의 규범체계 또는 통제기제의 내면화 가능성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면화의 필요조건으로써 청소년이 인지하고 있는 집합효율성의 정도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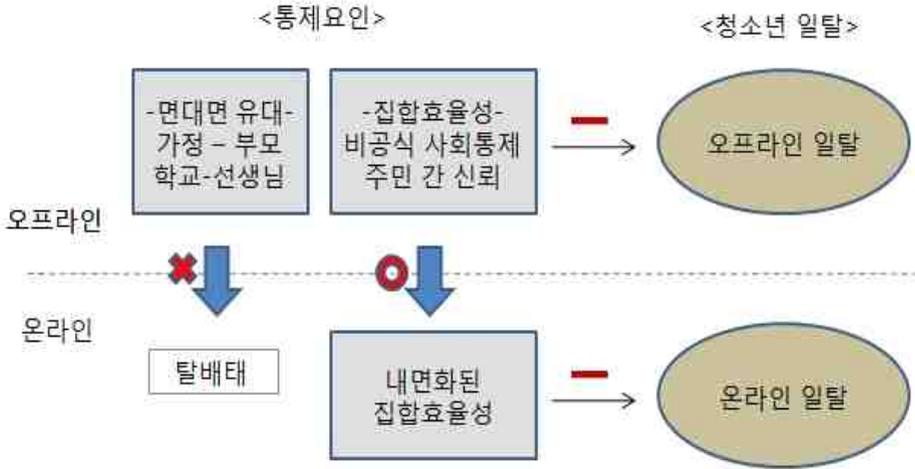
Ⅲ. 연구내용

1. 분석틀

우리는 흔히 차원이 다른 온/오프라인 공간을 따로 인식한다. 일탈에 있어서도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책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온/오프라인 공간은 상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는 통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특히 일탈의 통제요인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내면화된 규범체계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의 통제요인들 중 청소년에게 내면화될 수 있는 요소가 온라인 공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아래 [그림 1]의 연구모형에서처럼 면대면 유대와 집합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 통제요인의 효과를 살피려 한다.

면대면 통제 요인인 가정에서 부모님과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유대는 오프라인 일탈에 직접적인 통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청소년들이 면대면 관계로부터 탈배태되므로 통제요소로서의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면대면 관계보다 포괄적인 공동체 수준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집합효율성은 통제 대상인 청소년의 인지수준과 이에 따른 내면화 효과가 중요하므로, 온라인 일탈의 감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비공식 사회통제의 내용은 특정 오프라인 일탈만을 가정하고 있고 주민 간 신뢰는 청소년들에게 규범적으로 내면화되기에는 더 쉬우나 일탈에 개입할 수 있는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일탈을 통제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채택이나 기각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의 형태보다는 [그림 1]과 같은 분석틀 내에서 청소년의 오프라인에서도 중요한 일탈을 통제하는 요인이 온라인 일탈에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탐색해 보려 한다. 즉, 가정과 학교의 유대 효과 중 무엇이 상대적으로 온라인에서 덜 탈배태되는지, 비공식 사회통제와 주민 간 신뢰 중 무엇이 더 청소년에게 규범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는지 추정해보려 한다. 이러한 탐색은 현실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심각성이 확장되고 있는 청소년 일탈에 통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는 2003년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7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5년 동안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한 데이터이다. 2003년 4월 1일 기준 전국(제주도 제외)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하고, 2003년 4월 1일 기준 2003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삼아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의 방법으로 3,4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들을 표집하여 조사하였다. 응답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점인 2008년 6차 데이터는 많은 응답자들에게 지위비행은 더 이상 일탈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2010년부터 시작하여 3년 치가 축적된 가장 최근의 중학생 패널은 종단연구를 하기에는 사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종단연구를 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3. 측정도구 및 변수

다음 <표 1>은 변수목록이다. 청소년패널연구의 오프라인 일탈 내용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형 일탈은 제외하고 일탈의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지위비행은 ‘술 마시기’, ‘담배 피우기’, ‘가출경험’, ‘성관계 경험’을 합산한 것으로 성인이 되면 일탈이 아닌 유형이다. 재산비행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뺑뺑기)’, 폭력비행은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를 합산하였다. 온라인 일탈은 기존 연구들에서 비행 형태별로 공통의 유형과 방법을 찾기 어렵고, 오프라인 일탈 요인들의 온라인 일탈로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을 위해 각각의 유형별로 살펴볼 것이다. 온라인 일탈은 ‘허위정보 유포’, ‘불법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타인의 인터넷ID/주민번호 무단 사용’, ‘채팅하면서 성나이 속이기’, ‘타인의 컴퓨터/웹사이트 해킹’,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하기’의 6가지가 그 내용이다. 각각의 종속변수들은 지난 1년간의 일탈 횟수로 담배의 경우는 0부터 최대 996회를 나타내고 로그(log) 값을 취하여 오른쪽 꼬리가 늘어진 분포를 교정했다.

집합효율성의 두 내용 중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우리 동네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동네 어른들이 나를 꾸짖을 것이다’, ‘우리 동네에서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동네 사람들이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우리 동네에서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나는 동네 어른들(선생님)께 말씀을 드릴 것이다’, ‘우리 동네에서 친구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말리거나 경찰서(선생님)에 신고할 것이다’의 네 가지 문항을 내용으로 한다. 주민 간 신뢰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자주 만나는 편이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믿고 지내는 편이다’라는 설문으로 구성된다.

기존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일탈 통제요소인 부모유대는 본인에 대한 부모의 관심의 정도, 부모와의 관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선생님유대와 친구유대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관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탈 원인요인인 친구비행은 술, 담배 등 6가지 일탈에 해당하는 친구 수이며, 부모님의 부정적 행동은 부모의 폭행이나 욕설을 경험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탈낙인은 본인을 문제아

또는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제변수는 성별(여=0, 남=1), 지역(동=1, 읍=2, 면=3), 소득(월평균 가구소득), 성적(주요과목 평균), 연령, 컴퓨터 사용시간, 컴퓨터 사용수준, 아버지 학력이다. 컴퓨터 사용시간은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며, 컴퓨터 사용수준은 게임, 채팅 등 9개 항목에 대한 5점 척도(거의 하지 않는다-자주 한다) 응답을 합한 변수이다.

〈표 1〉 변수 목록

종속 변수	오프라인 일탈	지위비행(술, 담배, 가출, 성관계), 재산비행(뺑뜨기), 폭력비행(놀림, 왕따)	
	온라인 일탈	허위정보유포, 불법다운로드, ID무단사용, 성·나이속이기, 해킹, 욕설/폭언	
독립 변수	통제요인	집합효율성	비공식 사회통제, 주민 간 신뢰
		부모유대, 선생님유대, 친구유대, 자기통제력	
	원인요인	친구비행, 부모행동(negative), 일탈낙인	
통제 변수	성별(0=여, 1=남), 지역(1=동/2=읍/3=면), 소득, 성적, 연령, 컴퓨터 사용시간, 컴퓨터 사용수준, 아버지학력		

4. 분석 방법

대부분의 일탈이나 범죄 자료들은 비음정수(non-negative integer)이고 이산적(biscrete)이며 한쪽으로 치우친 비대칭분포(skewed distribution)를 따르는 가산자료(count data)이다. 특히, 본 연구의 자료는 일탈을 한 번도 하지 않은 '0'의 값에 많이 몰려있는 자료이므로 토빗 분석(Tobit analysis)을 사용하고자 한다. 토빗 분석은 제한된 범위의 관측값을 갖는 자료에 사용되는 분석으로 종속변수가 0에서 단절되거나 혹은 중간의 특정 값에 단절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분석방법이다. 이러한 자료에 OLS(Ordinary Least Square) 모형으로 추정하게 되면 0보다 작은 값이나 단절된 값보다 크거나 혹은 작은 값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도 추정이 될 수 있다(장종근 외, 2007).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패널분석모형 중 확률효과(random-effects)모형으로 분석을

할 것이다. 확률효과 모형은 패널 간 효과(between effects) 모형이 응답자별 평균만을 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하는 데 반해, 응답자 간 정보와 응답자 내 정보를 모두 사용하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응답자 내 정보만을 사용하는 고정효과(fixed-effects) 모형은 한 패널이 최대 5년밖에 차수가 없고, 일탈처럼 응답자 내 변화폭이 적은 변수를 다루는 본 연구에서 자유도 손실(loss of degree of freedom)이 크게 발생하므로 확률효과 모형이 보다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가 패널 데이터이면서 종속변수가 0에서 단절된 자료이므로 확률효과 토빗 회귀 분석(random-effects tobit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고자 한다.

IV. 연구결과

1. 오프라인 일탈 실태

다음 <표 2>는 유형별 오프라인 일탈 경험자 수이다. 지위비행은 가출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한다. 반면에 가출, 뺑뺏기, 놀림과 조롱, 따돌림은 꾸준히 감소하는 데, 이러한 경향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식적 처벌의 수준과 학업에 대한 압박이 커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오프라인 일탈 경험

	인원수(%)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담배	458(13.28)	334(10.48)	358(11.46)	428(13.71)	442(14.94)
술	1,057(30.65)	925(29.02)	1,140(36.48)	1,404(44.09)	1,583(53.52)
가출	139(4.03)	121(3.08)	103(3.3)	94(3.01)	55(1.86)
성관계	38(1.1)	27(0.85)	43(1.38)	68(2.18)	85(2.87)
뺑뺏기	189(5.48)	147(4.61)	43(1.38)	21(0.67)	9(0.3)
놀림과 조롱	512(14.84)	199(6.24)	132(4.22)	99(3.17)	73(2.47)
따돌림	489(14.18)	112(3.51)	65(2.08)	40(1.28)	29(0.98)

(괄호 안 %는 전체 3,449명에 대한 비율임)

2. 온라인 일탈 실태

다음 <표 3>은 유형별 온라인 일탈 경험자 수이다. 온라인 일탈은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 감소하였다. 불법SW다운로드는 2004년 반 정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여 전체 조사대상자의 20% 대를 유지하였다. 나머지 온라인 일탈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주민번호도용이나 성/나이 속이기는 온라인 생활의 장기화로 인해 자신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자신을 속일 필요성이 감소한 이유가 그 원인일 수 있다. 허위정보유포, 해킹, 욕설/폭언도 온라인 생활의 장기화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온라인 일탈 경험

	인원수(%)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허위정보유포	126(3.65)	94(2.95)	36(1.15)	40(1.28)	18(0.61)
불법SW 다운로드	1,088(31.55)	568(17.82)	778(24.9)	773(24.77)	881(29.78)
ID/주민번호 도용	822(23.83)	370(11.61)	202(6.46)	176(5.64)	125(4.23)
성/나이 속이기	1,158(33.57)	626(19.64)	328(10.5)	234(7.5)	123(4.16)
해킹	219(6.35)	92(2.89)	29(0.93)	23(0.74)	22(0.74)
욕설/폭언	1,453(42.13)	690(21.64)	348(11.14)	280(8.97)	210(7.1)

(괄호 안 %는 전체 3,449명에 대한 비율임)

3.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 4>와 같다. 패널 간 (between) 차이와 패널 내(within) 차이뿐 아니라 구분 없이 전체사례(overall)에 대해 계산한 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패널 내(within)의 관측 수 T는 개체별 평균 관측 연도 수를 나타내는데, 비공식 사회통제와 주민 간 신뢰는 2차 년도부터 물었기 때문에 다른 변수의 평균 관측수보다 작은 3.68의 값을 갖는다.

〈표 4〉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수
비공식 사회통제	overall	12,31	3,32	4	20	N=12391
	between		2,52	4	20	n=3364
	within		2,21	2,81	22,56	T=3,68
주민 간 신뢰	overall	5,14	1,87	2	10	N=12390
	between		1,45	2	10	n=3364
	within		1,20	-,86	10,64	T=3,68
부모유대	overall	34,04	7,01	10	50	N=15815
	between		5,66	10	50	n=3449
	within		4,27	4,84	58,70	T=4,59
친구유대	overall	49,78	3,66	7	41	N=15623
	between		2,75	15	38,66	n=3449
	within		2,49	13,55	40,42	T=4,53
선생님유대	overall	12,16	3,04	4	29	N=15569
	between		2,03	6	24	n=3449
	within		2,32	-2,51	27,35	T=4,52
자기통제력	overall	49,78	7,35	15	75	N=15791
	between		5,92	23	68,8	n=3449
	within		4,48	23,38	70,28	T=4,58
부모행동(N)	overall	6,98	3,11	4	20	N=15817
	between		2,38	4	20	n=3449
	within		2,06	-3,68	19,78	T=4,59
친구비행	overall	3,97	9,76	0	291	N=15667
	between		6,79	0	84,2	n=3449
	within		7,18	-67,23	223,77	T=4,55
일탈낙인	overall	13,12	3,81	6	30	N=15824
	between		2,62	6	29	n=3449
	within		2,84	-1,87	29,72	T=4,59

4. 오프라인 일탈 분석 결과

아래 <표 5>는 오프라인 일탈 세 가지 유형에 대한 패널 토빗 분석결과이다. 지위비행은 주민 간 신뢰와 부모행동(N)을 제외하고 주요 독립변수의 효과가 유의미하다. 특히,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지위비행의 경우는 통제요인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위비행은 일탈 기회에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가정과 학교의 통제로부터도 가장 영향을 받는 일탈유형이다. 술이나 담배, 가출은 친구들과 어울려 발생할 가능성도 많은 만큼 부모와 선생님이 인지하기도 쉬운 일탈유형이기 때문이다. 재산비행과 폭력비행은 집합효율성의 효과가 없었고, 부모유대라는 통제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지만 선생님유대의 효과는 유지되었다. 세 가지 오프라인 일탈유형은 모두 부모의 부정적인 행동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비행친구와 일탈낙인이 모두 일탈의 기회요인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유대는 사회유대이론에서는 일탈의 통제요인에 포함되지만 최근 많은 연구에서 일탈의 기회요인으로 나타난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일탈에 원인이 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낮은 자기통제력은 모든 오프라인 일탈을 증가시켜 기존 연구들에서처럼 일탈의 강한 억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기통제력과 관련하여 낮은 부모유대는 유의미했지만 부모의 부정적 행동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결정요인인 자기통제력 수준이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부모의 부정적 행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통제변수는 지위비행만 연령이 높을수록 재산 및 폭력 비행은 연령이 낮을수록 증가하였고, 성별은 폭력 비행에서만 남자가 더 일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사용시간은 지위비행에서만, 사용주수는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을 증가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정리하면, 오프라인 일탈은 집합효율성 중 비공식 사회통제와 면대면 통제요인 중 부모유대는 가장 빈번한 일탈인 지위비행에서 효과가 나타났고, 선생님유대는 모든 유형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즉, 오프라인 일탈에서는 지역 공동체 및 학교에서 모니터링을 통한 통제가 더 중요하다. 한편 기회요인 중 친구비행과 일탈낙인의 효과는 모든 일탈 유형에서 나타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발생하는 원인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고 반복되는 일탈 경험이 향후 일탈의 원인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지위비행이 컴퓨터의 사용시간과 사용수준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점은 지위비행이 온라인 일탈과 연계되어 일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온라인 일탈에 대한 분석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표 5〉 오프라인 일탈 패널 토빗 분석 결과

종속변수	지위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	
	coef.	z	coef.	z	coef.	z
비공식사회통제	-.020**	-2.67	-.036	-0.88	-.009	-0.37
주민 간 신뢰	.020	1.55	.075	1.08	-.024	-0.55
부모유대	-.020***	-5.48	.011	0.62	-.001	-0.07
친구유대	.064***	10.20	.044	1.42	.072*	3.49
선생님유대	-.021**	-2.86	-.097*	-2.27	-.063*	-2.41
자기통제력	-.036***	-10.64	-.084***	-4.63	-.128***	-10.81
부모행동(N)	.001	0.18	.060	1.79	.027	1.17
친구비행	.071***	26.65	.041***	6.94	.052***	9.39
일탈낙인	.032***	5.37	.126***	4.35	.086***	4.49
컴퓨터사용시간	.052***	4.02	.106	1.58	.044	0.99
컴퓨터사용수준	.018***	4.38	-.007	-0.32	.048**	3.46
지역(동읍면)	.058	1.26	.080	0.38	.143	1.05
성별(남=1)	-.008	-0.16	.144	0.62	.888***	5.72
성적	-.031	-1.03	-.117	-0.67	.296**	2.70
소득	-.000	-1.52	.001	0.96	.001	1.72
연령	.347***	19.47	-.850***	-6.60	-.422***	-6.16
아버지 학력	-.023	-1.09	-.029	-0.30	.075	1.22
χ^2	1688.40***		110.68***		349.63***	
N	9846		10679		10677	

* p<0.05, ** p<0.01 *** p<0.001

4. 온라인 일탈 분석 결과

다음 <표 6>는 온라인 일탈 6가지 유형에 대한 패널 토빗 분석결과이다. 우선, 인지된 집합효율성 중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성/나이 속이기에서, 주민 간 신뢰는 ID 무단사용, 불법다운로드, 욕설/폭언하기에서 일탈을 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 비공식 사회통제보다 주민 간 신뢰가 더욱 내면화된 통제기제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유대는 온라인 일탈에 통제효과가 전혀 없는 반면, 선생님 유대는 4가지 유형에서 통제효과가 나타나 온라인 일탈에서도 중요한 통제요인임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일탈에서 친구유대는 오프라인 일탈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일탈을 억제하는 요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프라인 일탈과는 달리, 해킹을 제외하고 다른 온라인 일탈 유형에서 일탈을 유인하는 효과 역시 없었다. 이는 오프라인 일탈(술, 담배, 따돌림 등)에서 나타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한 동기가 온라인 일탈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반영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온라인 일탈에서도 자기통제력은 모든 유형에서 그 영향력이 나타났다. 오프라인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이 부모유대와 관련이 있었다면 온라인 일탈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함께 부모의 부정적 행동이 일탈의 기회와 관련이 있었다. 즉, 허위사실유포, 불법다운로드, 해킹은 부모의 부정적 행동과 낮은 자기통제력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일탈임을 알 수 있다.

<표 6> 온라인 일탈 패널 토빗 분석 결과

	허위사실유포	불법 다운로드	ID 무단사용	성/나이 속이기	해킹	욕설/폭언
종속변수	coef.	coef.	coef.	coef.	coef.	coef.
비공식 사회통제	-.058 (-1.45)	-.020 (1.86)	-.014 (-0.78)	-.035 [*] (-2.30)	.044 (1.15)	.030 (1.58)
주민 간 신뢰	.029 (0.41)	-.120 ^{***} (-6.08)	-.063 [*] (-2.09)	-.033 (-1.22)	.089 (1.39)	-.086 ^{**} (-2.63)
부모유대	.024 (1.34)	.011 [*] (2.03)	.005 (0.59)	-.009 (-1.29)	-.017 (-1.00)	-.005 (-0.55)
친구유대	.044 (1.34)	-.002 (-0.26)	-.002 (-0.15)	.018 (1.48)	.060 [*] (1.98)	.029 (1.88)

	허위사실유포	불법 다운로드	ID 무단사용	성/나이 속이기	해킹	욕설/폭언
선생님유대	-.094 [*] (-2,22)	-.069 ^{***} (-6,06)	-.058 ^{**} (-3,23)	-.019 (-1,19)	-.067 (-1,67)	-.099 ^{***} (-5,03)
자기통제력	-.071 ^{***} (-4,00)	-.001 ^{***} (-4,13)	-.041 ^{***} (-5,547)	-.046 ^{***} (-6,95)	-.053 ^{**} (-3,25)	-.084 ^{***} (-10,17)
부모행동(N)	.108 ^{**} (3,04)	-.052 ^{**} (-4,54)	.020 (1,27)	.017 (1,18)	.108 ^{**} (3,20)	.023 (1,28)
친구비행	.012 (1,64)	-.003 (-0,92)	.014 ^{***} (3,66)	.019 ^{***} (5,46)	.012 (1,63)	.022 ^{***} (5,06)
일탈낙인	.071 [*] (2,30)	.003 (0,33)	.028 [*] (2,10)	-.009 (-0,77)	-.022 (-0,77)	.025 (1,70)
컴퓨터 사용시간	.116 (1,81)	.031 (1,62)	.077 ^{**} (2,72)	.030 (1,13)	.169 ^{**} (2,84)	.145 ^{***} (4,60)
컴퓨터 사용수준	.139 ^{***} (5,89)	.119 ^{***} (18,17)	.098 ^{***} (9,99)	.087 ^{***} (10,09)	.134 ^{***} (5,90)	.122 ^{***} (11,44)
지역(동읍면)	-.041 (-0,18)	-.129 (-1,87)	.274 ^{**} (3,15)	.430 ^{***} (5,71)	.062 (0,31)	.069 (0,67)
성별(남=1)	.982 ^{***} (3,82)	1,113 ^{***} (15,25)	.889 ^{***} (8,46)	.534 ^{***} (5,94)	1,356 ^{***} (5,14)	1,332 ^{***} (11,52)
성적	.097 (0,55)	-.013 (-0,29)	.059 (0,80)	.127 (1,91)	.292 (1,77)	-.047 (-0,58)
소득	-.001 (-1,64)	.000 (1,18)	-.001 [*] (-2,00)	-.000 (-0,47)	-.000 (-0,65)	-.000 (-1,08)
연령	-.406 ^{***} (-3,64)	.347 ^{***} (12,51)	-.326 ^{***} (-7,21)	-.603 ^{***} (-14,07)	-.352 ^{**} (-3,43)	-.678 ^{***} (-13,23)
아버지 학력	.138 (1,40)	.118 ^{***} (4,04)	.046 (1,14)	-.103 ^{**} (-2,78)	-.080 (-0,86)	.045 (0,98)
χ^2	97,92 ^{***}	818,86 ^{***}	322,16 ^{***}	492,82 ^{***}	93,09 ^{***}	638,14 ^{***}
N	10684	10676	10683	10684	10685	10681

* p<0,05, ** p<0,01 *** p<0,001, 괄호 안은 z값

세 가지 원인요인은 6가지 일탈 유형에서 골고루 분포하며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오프라인과는 달리 부모의 부정적인 행동이 일탈의 원인요인으로 나타났다. 단, 불법다운로드의 경우는 부모와의 유대(애착)관계가 높고, 부모의 부정적인 행동이 없을 경우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불법 다운로드가 많은 경향이나 앞서 온라인 실태에서 유일하게 연령이 올라가도 20%

정도의 일탈 비율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외적인 현상이다. 다른 5가지 유형과는 달리, 청소년의 불법SW다운로드는 가족 간 소통의 수단이나 고학력 부모로부터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큰 범법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위 사실유포나 욕설/폭언과는 다르게 일탈의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고 ID무단사용이나 성/나이 속이기와는 달리 오래 지속해도 들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여 가정과 학교 내에서도 불법다운로드를 통제할 의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불법다운로드에서 나타난 주민 간 신뢰의 통제효과는 중요하다.

통제변수는 컴퓨터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ID무단사용, 해킹, 욕설/폭언이 증가하였고, 컴퓨터 사용수준은 모든 온라인 일탈을 증가시키는 강한 효과가 나타났다. 성별도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은 불법SW다운로드를 제외하고 5가지 일탈에서 모두 나이가 어릴수록 일탈이 증가하였다. 지역변수는 오프라인에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온라인 일탈에서는 동-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ID무단사용 및 성/나이 속이기가 증가하였다. ID무단사용의 경우, 온라인 일탈에서 유일하게 컴퓨터 사용시간에 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성/나이 속이기는 비공식 사회통제가 부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읍면 단위로 갈수록 온라인 활동이 오프라인 모임과 연계된 경우가 많지 않거나 개인적인 활동이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정리하면, 온라인 일탈은 부모유대를 통한 통제는 효과가 없어 면대면 관계로부터 탈배태된다는 논지를 일부 지지하는 한편, 학교와 지역공동체는 중요한 통제요인으로 나타났다. 일탈 기회에 있어서는 오프라인 일탈에 비해서 친구비행과 일탈 낙인의 효과는 낮고, 부모의 부정적 행동에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오프라인 일탈보다 온라인 일탈이 면대면 통제영역에서 벗어나 있고 집합적 비행보다는 독립형 비행의 성격이 더 강함을 의미한다. 즉, 직접적 모니터링을 통한 통제보다는 청소년의 사회생활 영역을 통해 형성되는 내면화된 통제가 더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ID 무단사용이나 성/나이 속이기, 폭언 등에는 비행친구의 효과가 강하게 남아 있어서, 일부 온라인 일탈은 비행 청소년들의 사회적 비행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나이 속이기는 비공식 사회통제에 의해 유의하게 억제되는데, 오프라인 지위비행이 비공식 사회통제와 컴퓨터 사용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 비행 중 성/나이 속이기는 지위비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법다운로드는 부모와의 관계가 가까운 고학력 가정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여, 다른 온라인 일탈과는 구분되는 화이트칼라 온라인 일탈의 성격이 의심된다.

V.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일탈에 있어 기존의 중요한 통제역할을 했던 가정과 학교의 영향력을 검증하면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공동체 요인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과거에 청소년 일탈이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최근 심각성이 논의 되는 것은 통제요인의 부재가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일탈은 면대면 유대를 통한 통제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온라인 활동이 급격히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청소년의 온라인 일탈을 방지할 경우 오프라인 일탈로 발전(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할 수 있는 두 공간의 상호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룬 공동체 요인인 집합효율성의 효과는 오프라인 일탈 통제요인의 대안이 되면서 온라인 일탈의 예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갖는다.

분석결과는 우선 오프라인 일탈에서 주로 효과를 보여 온 면대면 유대의 통제효과가 온라인 일탈에서는 전반적으로 약화됨을 확인하였다. 부모유대는 오프라인 일탈에서 지위비행만 억제하는 요인이었고, 온라인 일탈에서는 불법다운로드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사회유대이론에서 강조하는 일탈을 억제하는 요인으로서의 한계를 보였다. 반면 학교는 오프라인 일탈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통제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여러 종류의 온라인 일탈에서도 통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면대면 유대의 효과와 비교하여 살펴본 집합효율성의 효과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공동체적 신뢰 간에 온/오프라인 효과가 대조를 보였는데, 비공식 사회통제는 오프라인 일탈 중 지위비행을, 공동체적 신뢰는 주로 온라인 일탈을 억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비공식 사회통제가 지위비행에만 효과가 있었던 것은 본 연구가 우려했던 바와 같이 비공

식적 사회통제의 문항이 가지는 한계일 수 있다. 그러나 폭력비행에서는 그 영향력이 없었고 온라인 일탈 중 성/나이 숙이기에 영향을 준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설문당시 일탈의 구체적 예보다는 주민들의 일탈에 대한 개입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통제요인인 선생님 유대가 온라인 일탈에 영향을 준 것처럼 주민 간 신뢰의 온라인 일탈로의 영향력도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다. 선생님 유대란 청소년들이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신뢰가 온라인의 행위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청소년들이 주변인들에게 느끼는 신뢰는 규범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추론할 수 있으며 주민 간 신뢰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에서 형성된 신뢰가 온라인 일탈을 억제하는 효과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이 상호 연계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일탈은 친구와의 유대나 비행친구와의 접촉, 그리고 본인의 일탈 경험이 일탈기회의 원인이므로 모니터링을 통한 통제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나 지역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기제를 활용하여 비행접촉의 기회를 억제하고, 일탈 경험이 청소년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학교와 지역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반면, 6가지 온라인 일탈 모두에 강한 효과를 보인 변수는 자기통제력이 유일한데서 드러나듯, 직접적 모니터링이 어려운 온라인 일탈의 경우는 좀 더 내면화된 통제력이나 도덕감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일탈에 효과를 보인 선생님과의 유대나 공동체적 신뢰가 내면화되어 온라인 일탈에 억제효과를 갖는지는 본 연구의 분석만으로는 알기 힘들다. 그러나 온라인 일탈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6가지 일탈 중 3가지에서 선생님과의 유대감과 지역적 신뢰감이 함께 효과를 보인 것은 학교, 지역, 온라인 등 청소년의 주요 소속 공동체에 대한 내면화된 도덕감이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집합효율성이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져 분석된 점과 실제 지역사회의 집합효율성을 분석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부모관계와 같은 강한 유대보다는 약한 유대를 기초로 작동하는 통제 기제가 청소년 일탈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욕설이나 폭언과 같은 일탈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그리고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에게 가해질 수 있다⁶⁾. 이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이 그 원인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규범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 학습되는 통제요인은 주관적 판단을 전제하기 쉽지만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학습되는 통제요소는 객관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공간과 상대가 바뀐다고 해도 일탈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반화된’ 규범은 약한 유대와 더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일탈의 이질성이나 관련 연구의 부족 등으로 온라인 일탈을 오프라인 일탈처럼 유형화해서 분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는 온라인 일탈의 유형에 따른 대책을 위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불법다운로드는 부모와의 유대감, 가정의 화목, 부모 학력과 함께 증가하는 중산층적 일탈의 성격을 보여주고, ID 도용이나 성/나이 속이기, 폭언 등은 비행 친구의 수와 함께 증가하는 점에서 오프라인 일탈과 연계된 활동으로서의 일탈일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의 온라인 일탈 일반을 억제하기 위해 학교나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유형별 온라인 일탈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계층적 배경이나 오프라인 일탈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6) 초등학생과 일반인이 주로 ‘아는 사람’에게 사이버폭력을 행사하는 반면, 중고등학생의 50% 이상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행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참고문헌

- 김영지, 방은령, 박정선(2006).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 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편.
-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곽대경, 박정선(2009). 청소년 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 민인식, 최필선(2009). STATA 패널 데이터 분석. 서울: 한국STATA학회.
- 이성식(2008). 청소년 사이버범죄 유형별 원인 및 통제요소에 관한 통합적 연구.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김의철, 박영신(2001). 청소년 학교폭력행동과 환경 및 심리특성의 관계 : 위탁청소년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제15권 제2호, pp.25-52.
- _____ (2003).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9권 제1호, pp.81-114.
- 남수정(2011). 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중독의 매개 효과와 익명성의 조절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제49권 제2호, pp.63-74.
- 노성호(2005).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가정, 학교, 친구요인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형사정책 연구, 제16권 제3호, pp.295-330.
- 민수홍(2005).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로서의 청소년비행과 학교에서의 징계경험. 청소년 학연구, 제12권 제2호, pp.1-25.
- 박정선(2003).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폭력비행 : 다수준 접근의 적용.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 19집, pp.35-53.
- 박현수, 박성훈, 정혜원(2009). 청소년 비행에 있어 낙인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 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 pp.227-251.
- 신동준, 이명진(2006). 사이버폭력과 그 대책 : 자율적 통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0호, pp.149-195.
- 신준섭, 이충환(2010).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자기통제력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8호, pp.105-128.
- 윤우석(2010). 경찰의 공식적 사회통제가 지역사회의 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미치는 영향검증.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3호, pp.381-407.

- 이경남, 하연미(2004). 청소년의 인터넷관련 비행과 관련변인간의 경로분석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제45권 제4호, pp.127-143.
- 이상문(2005). 성별에 따른 일탈행동 성장경로의 차이 : 미국청소년패널조사(NYS)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9집 제4호, pp.162-197.
- 이성식(1994). 구조적, 문화적 차이를 통한 청소년비행의 원인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통권 제17호, pp.42-70.
- _____ (2006). 중학생 오프라인과 온라인 폭력 원인모색을 위한 주요 요인들의 적용.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6호, pp.179-200.
- _____ (2008).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아와 청소년비행.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pp.229-249.
- _____ (2010).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요인들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비행에의 영향 비교.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pp.203-223.
- _____ (2013).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서의 불법행동과 그 원인으로 사회자본과 그 쟁점: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비교.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pp.261-290.
- 이성식, 황지영(2008). 인터넷사이트 집합적 효율성과 사이버언어 폭력.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pp.167-189.
- 장종근, 조용제, 오승용, 김은미(2007). Tobit 모형을 이용한 중·고등학교 우유급식이 우유 소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22권 제4호, pp.498-502.
- 정완(2007). 사이버범죄의 주요동향과 형사정책적 과제.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pp.1499-1535.
- 조동기(2006). 사이버공간의 일탈유형과 사회통제의 특성. 정보와 사회, 제 10호, pp.73-97.
- 최수형(2008).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과정에서 나타난 비공식낙인의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제3호, pp.33-55.
- 미래창조과학부(2013). 201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방송통신위원회(2013). 2013 사이버폭력실태조사.
- Akers, R. L.(1985).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Belmont, CA: Wadsworth.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W. H. Freeman and Company.
- Elliott, D. S. and S. Menard. (1996). *Delinquent Friends and Delinquent Behavior: Temporal and Developmental Patterns in Delinquency and Crime*. edited by J. D. Hawki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D. C. and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mert, E. M. (1951). *Social Pathology*. New York: McGraw-Hill.
- _____(1967).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ampson, R. J. and Laub, J. H.(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Amemiya, T.(1984) Tobit models : A Survey. *Journal of Econometrics* Vol. 24, pp.3-61.
- Akers, R. L., Krohn, M. K., Lanza-Kaduce, L. and Radosevich, M. (1979). Social Learning and Delinquent Behavior: A Specific Test of General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4, pp.636-655.
- Bandura, A.(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pp.122-147.
- Buker, Hasan.(2011). Formation of self-control: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nd beyond.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Vol. 16 No. 3. pp. 265-276.
- Burgess, R. L. and R. L. Akers.(1966). A Differential Association-Reinforcement Theory of Criminal Behavior. *Social Problems*, Vol 14, pp.128-147.
- Gibbs, J. J. and Giever, D.(1995). Self-Control and Its Manifestations among University Student: An Empirical Test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ustice Quarterly* Vol. 12, pp.231-235.

- Gibson, C. L., Zhao, J., Lovrich, N. P. and Gaffney, M. J.(2002). Social Intehration, Individual Perceptions of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of Crime in Three Cities. *Justice Quarterly*, Vol. 19 No. 3, pp. 537-64
- Glaser, D.(1956). Criminal Theories and Behavioral Imag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1:433-444.
- Grasmick, H. G., Tittle, C. R., Bursik, R. J. and Arneklev, B. K.(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0, pp.5-29.
- Krohn, M. D., Skinner, W. F., Massey, J. L. and Akers, R. L.(1985). Social Learning Theory and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A Longitudinal Study. *Social Problems* Vol. 32, pp.455-471.
- Liska, A. E. and Reed, M. D.(1985). Ties to Conventional Institutions and Delinquency: Estimat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0, pp.547-560.
- Matsueda, R. L.(1982). Testing Control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A Causal Modeling Approach. *American Sociology Review* Vol 47, pp.489-504.
- Morenoff, J. D., Sampson, R. J. and Raudenbush, S.(2001) Neighborhood Inequality, Collective Efficacy, and the Spatial Dynamics of Urban Violence. *Criminology*, Vol. 39, pp. 517-560
- Sampson, R. J. and Groves, W. B.(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pp.774-802.
- Sampson, R. J., Raundenbush, S. W. and Earls, F.(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 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Vol. 277, pp.918-924.
- Sampson, R. J. and Raundenbush, S. W.(1999). Systematic Social Observation of

Public Spaces: A New Look at Disorder in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5, pp.603-651.

Sampson, R. J., Morenoff, J. and Earls, F.(1999). Beyond Social Capital: Spatial Dynamics of Collective Efficacy for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4, pp.633-660.

Short, J. F.(1957). Differential Association and Delinquency. *Social Problem* Vol 4, pp.233-239.

Wiatrowski, M. D., Griswold, D. B. and Roberts, M. K.(1981).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6, pp.525-541.

Wood, P. B., Pfefferbaum, B. and Arneklev, B. J.(1993). Risk-Tasking and Self-Control: Social Psychological Correlates of Delinquency.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Vol. 16, pp.111-130.

The Effect of the Perceived Collective Efficacy on Online and Offline Delinquency*

Lee, Sunhyoung** · Kang, Jeongha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current research on adolescents' delinquency by comparing online delinquency and offline delinquency. Unlike offline delinquency, online delinquency is likely committed anonymously and, therefore, offline social control may not work for online space.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collective efficacy that is highly regarded in the formation of adolescents' morality and examines if it can work as social control for online delinquency. Collective Efficacy means a community-level capability of residents that can solve disorder and crime spontaneously through monitoring and paying attention for public good. This study identifies two major components of collective efficacy, i.e., mutual trust among residents and informal social control. It then estimates the effect of the perceived collective efficacy on various types of adolescents' delinquency, using 5-year(2003-2007) panel data from National Youth Panel Survey.

In terms of relational control, parental attachment shows a limited effect for offline delinquency only while teacher attachment is a significant control factor for online delinquency. In terms of collective efficacy, mutual trust rather than informal social control functions for the decrease of online delinquency. The effect of perceived mutual trust on online delinquency suggests the internalization of collective efficacy in online space. Because offline delinquency is affected by social relations with teacher, parents, and delinquent friends, monitoring through intimate relationships is important to reduce it. In contrast, because teenagers are disembedded from thos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by the Government NRF-2013S1A3A2055285

** Ph.D. Student, Department of Sociology, Yonsei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Yonsei University

intimate relationships in online space, online delinquency is reduced by the internalization of trust which was built in offline community-neighbors.

❖ Key words: Offline Delinquency, Online Delinquency, Collective Efficacy, Tobit Analysis